

전주시 객사길 보행자 중심 걷고 싶은 거리 설계¹⁾

- 주민참여형 가로설계 -

김성균* · 정태영**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남원건설엔지니어링

The Walkable Street Design for "Gaeksa-gil" of Jeonju City - Community Participatory Street Design -

Kim, Sung-Kyun* · Jeong, Tae-Yo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wonkeonseol Engineeri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reetscape design for the "Gaeksa-gil", located in Gosa-dong and Jungang-dong, Jeonju City, which length is about 830m and width is about 8~10m. The goals of the design are to make a street on which people want to walk and rest both safely and pleasantly. To achieve these goals; concepts of identity, history, placeness, commercial vitality, environmentally-friendliness, safety, amenity, and democracy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edestrian safety; shared street concepts, such as crank, slalom, fort, mini-rotary etc. are adopted. For design method, community participatory design is adapted.

For the design theme; the axes of Time and Space are developed and streets are divided into 3 thematic spaces, such as "History Street," "Nature Street," and "Culture Street." The History Street, which belongs to Time axis, is a space for experiencing past, present, and future history of Jeonju city. Nature Street, which belongs to Space axis, is a space for feeling and learning the nature of the city. The Culture Street, which also belongs to Space axis, is a space for experiencing the culture of the city.

The community participated in the whole design process through the workshop, the internet website, the street events, etc.

Key Words: Streetscape Design, Jeonju Gaeksa-gil, Community Participatory Design

Corresponding author: Tae-Young Jeong, Namwonkeonseol Engineering, Korea, Tel.: +82-31-389-0293, E-mail: taeng13 @chol.com

1. 서론

1. 개요

전주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과 이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으로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전통 상업가로의 상업 활성화와 객사길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1999년 대상지에 대한 가로설계 기본계획안을 현상 공모하게 되었다.

객사길은 전북 전주시 중앙동과 고사동에 위치하는 연장 약 830m, 폭 8~10m에 이르는 전주시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가로이며, 주변에 전주시청과 역사문화유적인 조선시대 객사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설계의 목적은 상업의 활성화, 전통과 미래의 이미지를 창출,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설계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설계과정의 도입에 두고 있다.

2. 설계의 방법 및 과정

설계방법으로 주민참여형 설계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주민참여 설계과정은 표 1과 같다. 주민참여방법으로는 8차에 걸친 인근 주민들의 워크숍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전주시민들이므로 설계과정동안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²⁾.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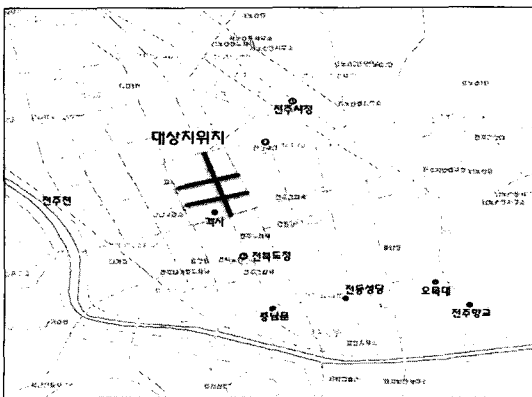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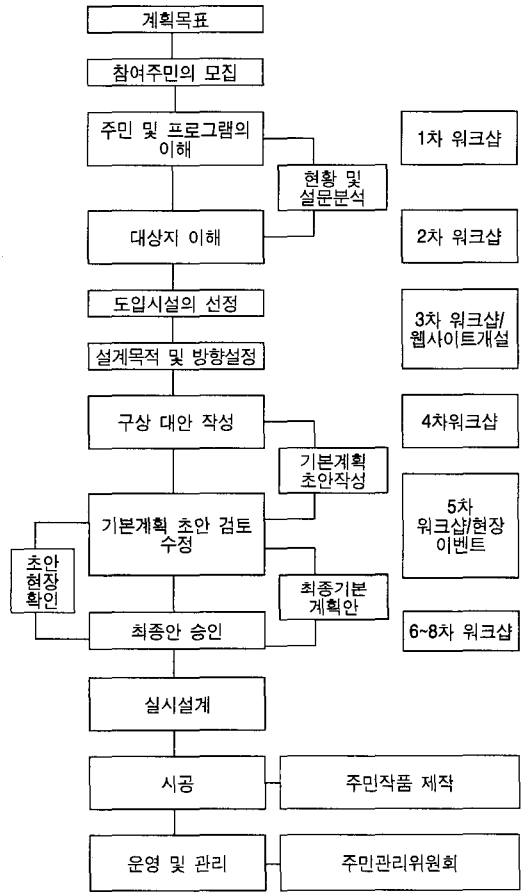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위치

표 1. 주민참여 설계과정



터넷 웹사이트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연결시켰다. 한편으로, 현장에서 각 단계별 이벤트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설계진행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론적 고찰

1) 보행물

보행물(pedestrian mall)은 도시상업지구에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풀 몰(full mall), 대중교통수단만 허용되는 트랜зит 몰(transit mall), 차량 통행을 허용하되 속도, 시간, 주차 등을 제한하는 세미 몰(semi mall) 등이 있

으며(Rubenstein, 1992) 본 설계안에서는 세미 볼 유형으로 접근하였다.

2) 보차공존도로

고밀도 도시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이 곤란한 제약조건하에 그것을 개조하고 특별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허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친밀한 가로를 만들며, 한편으로 가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 통행영역과 보행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보차융합형과 단차, 블라드 등에 의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보차분리형이 있으며, 본 설계안에서는 보차융합형과 보차분리형을 병행 실시하였다(한국토지공사, 1998).

3) 주민참여설계

주민참여설계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설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모든 주민에게 계획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바가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설계 방법이다.

주민참여 도입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김성균, 2001).

- 주민들간의 대화 및 공동참여에 의한 참여의식, 주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형성
- 참여자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요구를 증제 및 조정
- 더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설계안 도출
- 주민 스스로 만든 장소라는 인식을 통해 공간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주민들에 의한 유지관리로 관리의 효율화 및 관리비 절감
-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심 및 주민의식 형성
- 주민들의 관심의 증대로 공간의 활용성 증대와 범죄 및 기물 파손 예방

II. 대상지 현황

1. 토지이용

대상지는 시청에서 도청까지 도심의 보행축선에 위

치하고, 남쪽에 전주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전주객사와 연결된 오래된 길이지만, 주변에 의류, 악세서리, 식당, 전자기기 등 소매상가가 위치하여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화려한 현대적 이미지의 공간이다.

2. 교통량

대상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차량통행금지 시간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차량이 이동하나, 차량개방시간의 경우에는 오거리~객사 구간의 통과차량이 많았다. 보행자는 새하나 백화점~팔달로 구간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다.

3. 업종 분석

전체적으로 의류업이 주류를 이루며, 오락시설, 음식점 등 유흥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대체로 10~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가의 소유형태는 약 75%가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 임대인들은 공사기간 동안 영업 저조와 시공 후 전세가 의 증대를 우려해 가로 정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4. 경관 및 색채 분석

남쪽으로 남고산이 조망되며, 가로를 따라 연결된 상점으로 인해 비교적 화려한 가로경관을 이루고 있으나 강한 색채의 산만한 간판, 복잡한 도로변이 시각적 저해 요소이었다. 대상지 남쪽의 객사건물은 대상지의 전통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가로 색채는 객사건물의 적색계가 두드러지며 기타의 건물은 대체로 회색 계통을 이루고 있다.

5. 역사문화환경

전주시는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전주이씨 조선조의 발원지여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상지내에 전주시의 대표적 역사유물인 객사가 위치하며, 주변에 풍남문, 경기전, 전주향교, 오목대, 조경단 등 많은 역사유물이 분포하고 있다(전주시, 1997).

6. 건물전면 활용공간 분석

상인들은 상가 전면에 수목, 가로시설물, 전기시설 등의 설치를 가장 싫어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물과 건물사이, 공공기관 전면 등 시설물이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공간을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7. 자연환경

대상지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식물은 거의 없으나, 과거의 전주의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분포한 수백년된 보호수들을 조사하였다.

III. 설계의 목표 및 방향

설계의 목표는 차별성, 역사성, 전통성, 친환경성, 매력성, 민주성, 경제성에 두었으며 각 항목별 목표를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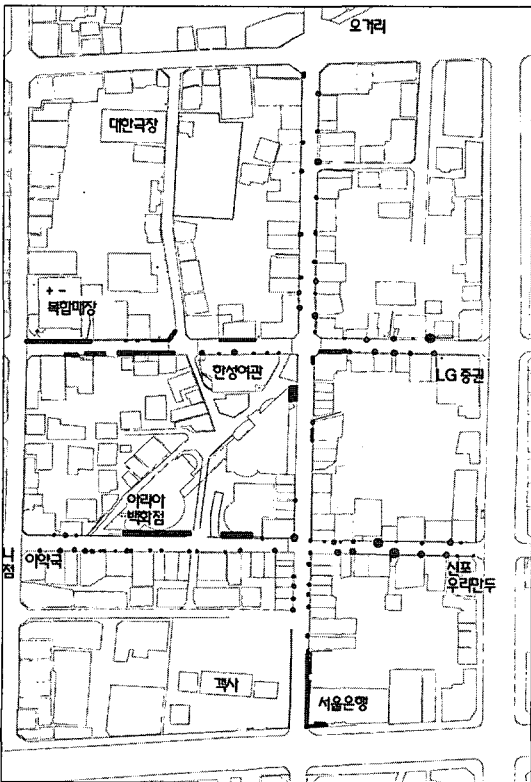


그림 2. 건물전면 활용공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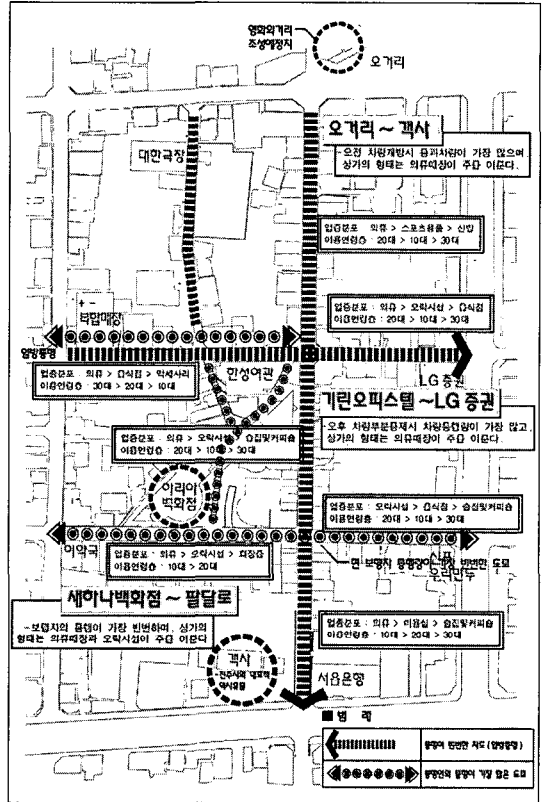


그림 3. 현황분석 종합도

성하기 위한 설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성

다른 곳의 가로와 차별화되는 전주에만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전주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고, 전주의 대표적 유물인 객사의 이미지를 도입한다.

2. 역사성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간의 축을 두어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

3. 전통성

전주의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

의 축을 두어 전주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

4. 친환경성

안전한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차공존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없는(bARRIER-free) 가로로 설계한다.

5. 매력성

도시인의 고향과 같고, 다시 견고 싶은 매력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상징조형물, 수경시설 및 가로시설물의 CI 계획을 도입한다.

6. 민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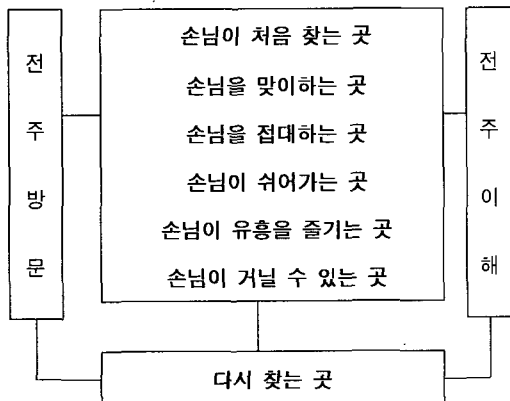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설계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리를 조성한다.

7. 경제성

활기 있는 상업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도심지의 기능을 보존하고, 기존의 상업행위에 방해되지 않는 설계를 한다.

IV. 개념의 전개

표 2. 주제의 설정



1. 주제설정

가로의 다른 가로와 차별화되는 강한 이미지를 갖도록 주제를 부여하였으며, 주제는 대상지내의 중요한 역사유물인 객사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객사는 조선시대에 외부 귀한 손님이 방문하여 처음 찾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었으며, 가로가 이러한 의미를 갖도록 개념을 도입하였다.

2. 공간구상

설계목표와 도입된 주제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축을 도입하여 전주시의 역사, 문화, 자연을 함축하였다.

1) 시간의 축

새천년이 시작하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한 역사의 길을 조성하였다(그림 4 참조).

2) 공간의 축

공간의 축은 문화와 자연의 거리로 나누어지며, 문화의 거리는 전주의 멋과 맛의 주제를 도입하였으며, 자연의 거리는 전주의 산과 물의 주제를 도입하였다(그림 5 참조).

V.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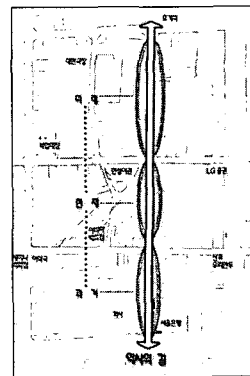


그림 4. 역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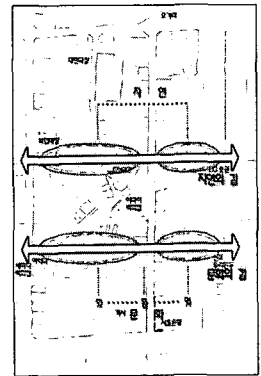


그림 5. 자연·문화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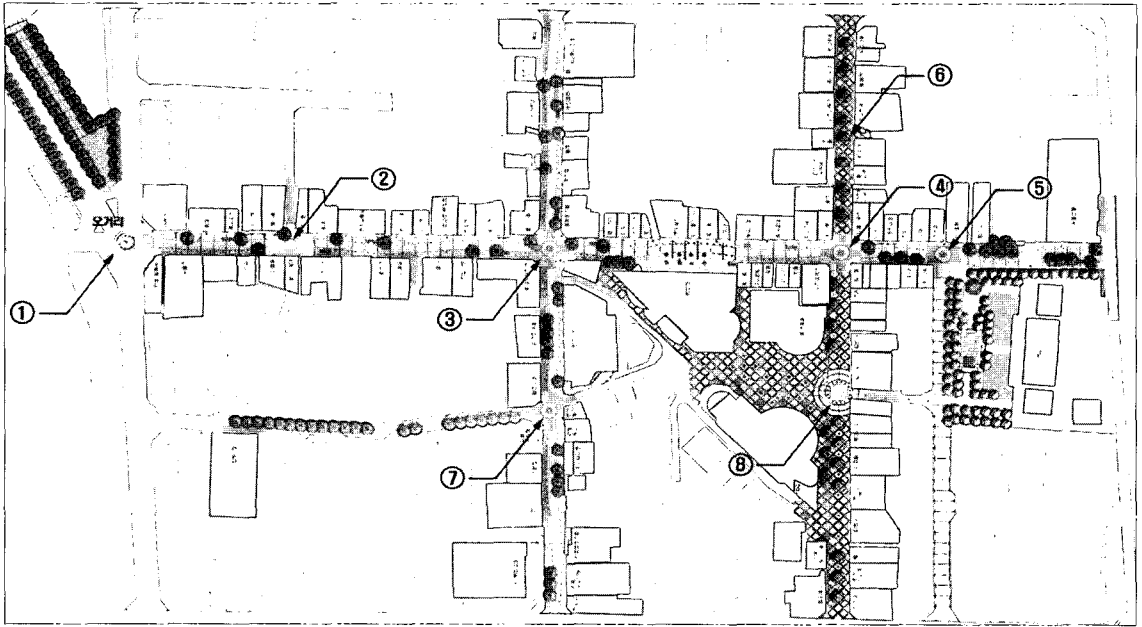


그림 6. 기본계획도

법례 : ① 원형분수 ② 세계속의 전주지도 ③ 현재속의 전주지도 ④ 조선시대 전주지도 ⑤ 후삼국시대 전주부지도 ⑥ DDR 도판
⑦ 전주풍수형국도 ⑧ 전라북도지도

1. 동선계획

상황에 따라 차량통행을 개방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도록 가로형태를 물리적으로 고착시키기보다는 가변성 있는 설계를 하였다.

전체의 가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하는 보차공존 도로 설계기법(한국토지공사, 1988)을 사용하였다.

2. 식재계획

1) 기본개념

가로수는 도로폭 및 상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열식보다는 상가의 간판이 최소한 가려지는 위치에 적절히 점식하여 가로의 녹지이미지를 높였다.

가로수 수종은 대상지 주변의 노거수, 보호수(느티나무,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등)를 선정 각 구간별로 식재하였다.

2) 주요 수종

역사의 길은 느티나무, 자연의 길은 모감주나무, 문화

의 길은 회화나무를 주 수종으로 하고 플랜터에는 광나무와 팽팡나무를 심었다.

3. 가로시설물 계획

대상지와 연결선상에 있는 풍남문의 아치형, 객사의 기둥과 벽면 패턴을 가로시설물의 설계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아치형은 도시의 수직적 선을 완화시키고 대비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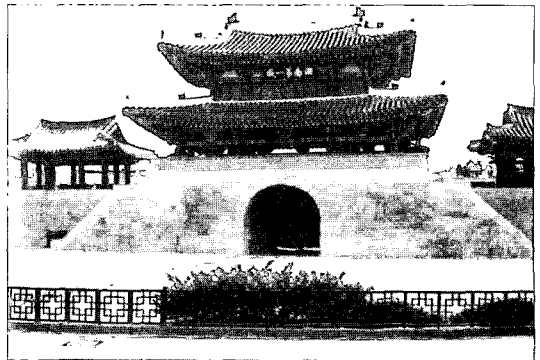


그림 7. 풍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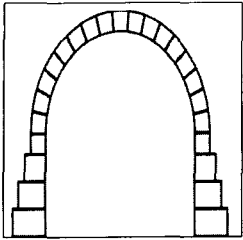


그림 8. 형태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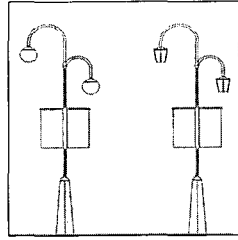


그림 9. 모티브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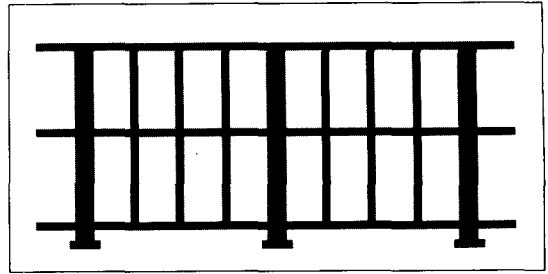


그림 14. 형태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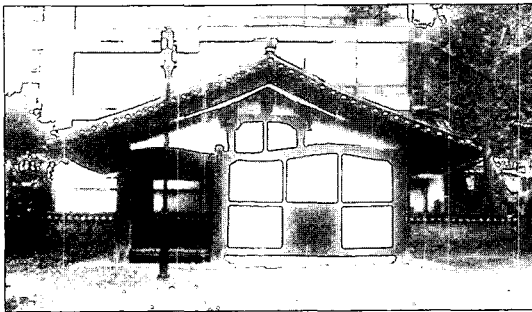


그림 10. 객사 건물 벽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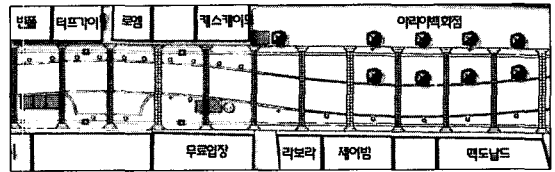


그림 15. 형태 모티브의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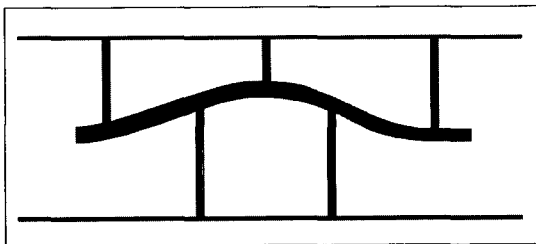


그림 11. 형태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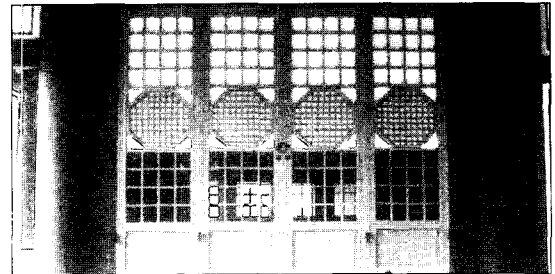


그림 16. 객사 문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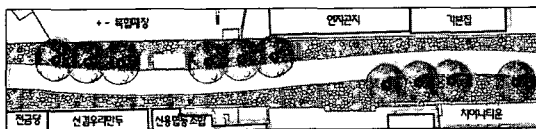


그림 12. 형태 모티브의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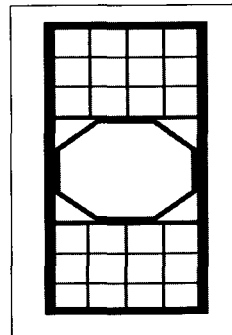


그림 17.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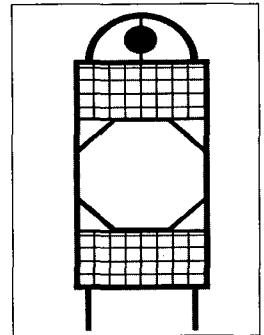


그림 18. 모티브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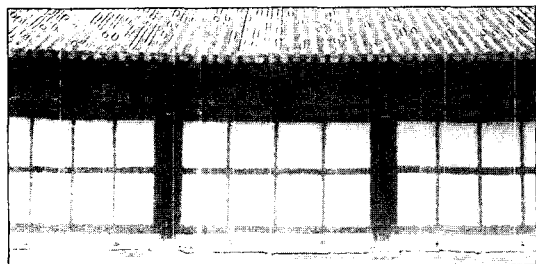


그림 13. 객사 기둥 패턴

4. 포장 계획

주요 포장재료는 시각적 무게감과 기능적 견고성을 위해 화강석 포장을 도입하며, 활발한 상업적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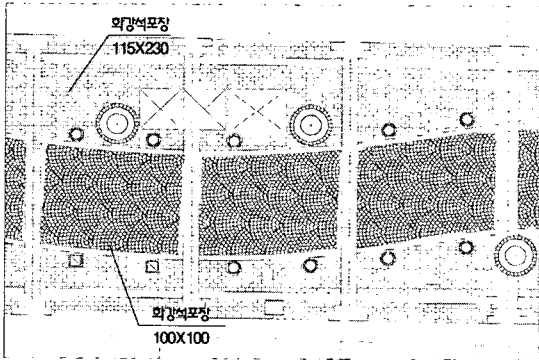


그림 19. 역사의 길 포장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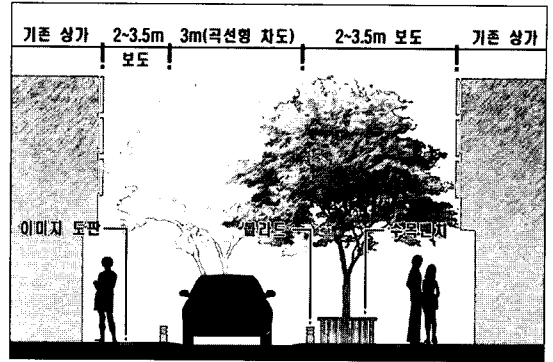


그림 20. 역사의 길 단면도

조성을 위해 밝고 따뜻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하며, 포장 패턴은 객사 건물에서 두드러진 요소를 모티브로 한다.

VI. 공간별 설계

1. 역사의 길

1) 설계개념

가까이에서 전주의 대표적 역사유물인 객사가 위치하며, 대상지의 중심이 되는 가로로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담고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2) 가로형태

보차공존형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계하며, 시간제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시설을 도입한다. 역사의 흐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굴곡형 보차공존도로를 도입한다(그림 20, 21 참조).

3) 설계요소



그림 21. 역사의 길 (시공 후)

전주의 주요 역사내용을 도판으로 제작, 바닥에 부착하며, 차량주차방지를 위한 원형과 사각형의 블라드를 설치한다(그림 22 참조).

2. 자연의 길

1) 설계개념

주변에 공공건물이 다수 분포하여 비교적 조용하고 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주팔경 등 전주의 아름다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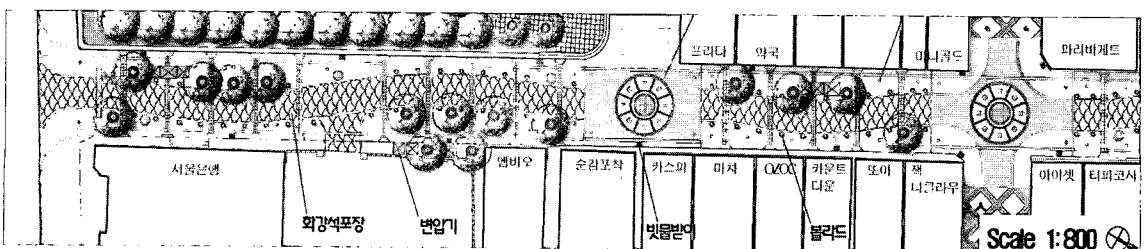


그림 22. 역사의 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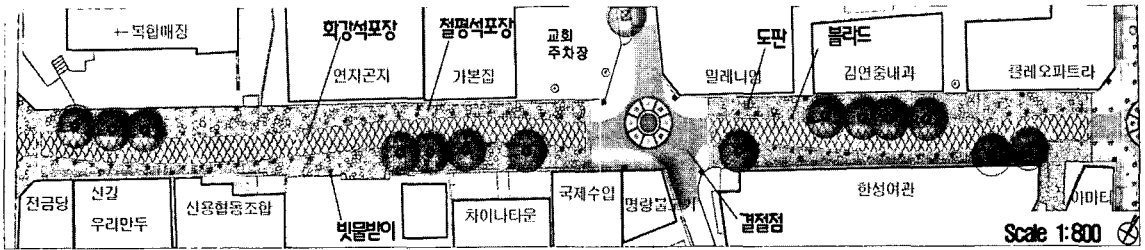


그림 23. 자연의 길 평면도

연 및 전주의 동·식물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가로형태

자연의 이미지와 가까운 굴곡형 보차공존도로를 도입한다(그림 24, 25 참조).

3) 설계요소

분석된 식재가능 공간에 교목을 식재하고, 전주पाल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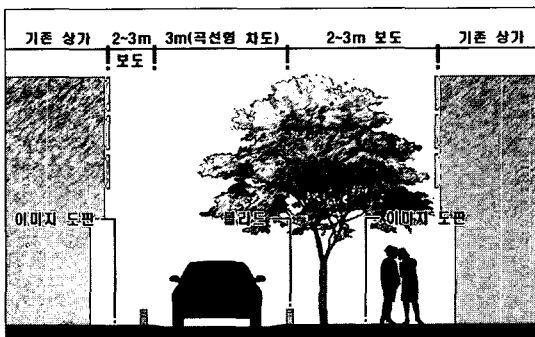


그림 24. 자연의 길 단면도



그림 25. 자연의 길 (시공 후)

및 전주의 동·식물상을 도판 타일로 제작 바닥에 부착한다. 주차방지를 위해 자연석 형태의 블라드를 배치한다(그림 23 참조).

3. 문화의 길

1) 설계개념

대상지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고 활성화된 젊은 층 중심의 가로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부하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천년고도 전주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창출한다.

2) 가로형태

많은 유동인구의 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배치하며, 서비스 및 비상차량통행 이외에는 전제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계한다. 장애물이 거의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되 비상시 차량통행을 위해 일정한 폭을 확보한다(그림 26,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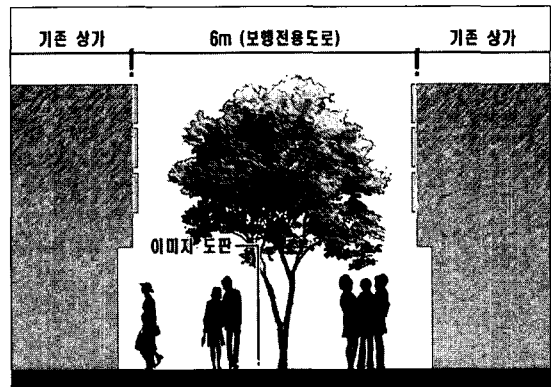


그림 26. 문화의 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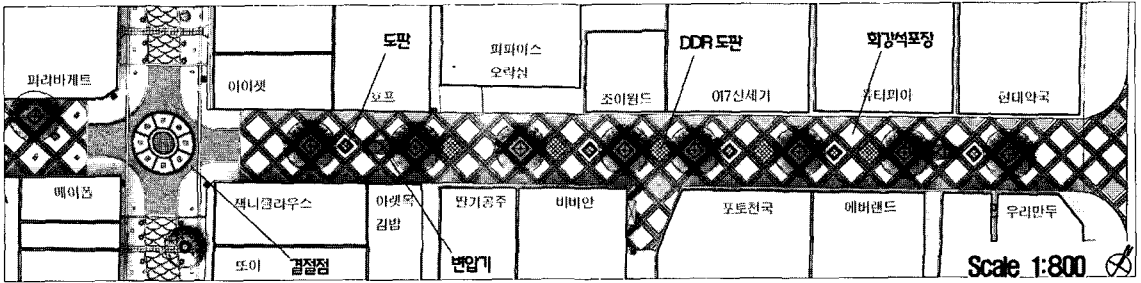


그림 27. 문화의 길 평면도



그림 28. 문화의 길 (시공 후)

3) 설계요소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 교목 식재 및 소규모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전주의 맛, 멋, 흥의 3가지 요소를 주제로 한 도판타일을 배치한다. 이동이 가능한 다각형 블라드 및 플랜트박스를 도입한다(그림 27 참조).

VIII.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제8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1999. 10. 19)에서는 상인, 이용자 및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설문 및 면담의 결과는 대상지에 대해 전통과 현대가 합쳐진 이미지를 원하였으며, 원하는 도입시설로 휴식공간, 주차장, 바닥포장, 가로시설물 개선 등을 희망하였으며, 보차공존도로, 차량통제, 이벤트유치 등을 선호하였다.

제2차(11. 18)는 상가번영회장 및 전주시 도로과 직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상인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3차(11. 30)는 상인 및 이용자에 대한 가로이벤트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에 분석된 내용과 제안된 설계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다(그림 29 참조).

제4차(12. 13)는 시청 회의실에서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개요설명, 설문분석 내용의 설명, 설계구상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설계주제, 구상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5차(2000. 1. 19)는 대상지의 비어있는 상가를 이용하여 마련한 회의실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준비된 설계구상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대체로 설계주제, 구상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차없는 거리에 따른 주차장 문제가 집중으로 논의되었다.



그림 29. 주민참여 웹사이트 (설문조사)

제6차(1. 28)는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시민단체와 워크숍을 통해 대상지 걷고 싶은 거리의 설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7차(2. 19)는 한성다방에서 상가주민대표 및 주민들에 의해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8차(4. 1)는 제5차의 회의장소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설계안이 확정되었다.

VII. 결론

전주시의 개사길에 대한 상업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형 가로설계를 제안하였다. 현재 시공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가로경관개선에 대한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공 및 이용과정에서 생긴 포장면의 파손 등이 불만사항으로 나타나 있다. 가로설계는 도시건물 사이에 위치해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는 설계안 뿐만 아니라 정교한 시공과정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 걷고 싶은 거리는 상가지역에 위치하여 상가 거주자 사이의 영업행위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 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설계를 도입하여 주민들 간에 이해의 상충을 완화시키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서로의 동의에 의해 가로의 형태 및 시설이 도입하고자 하였다. 기존 가로설계에서는 수목의 위치, 한전 지중화시설의 위치, 가로시설물의 위치, 보행로부분의 폭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민참여설계에 의해 문제점, 어려운 점들이

이해되어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시공 후 청소, 주차역제 등 가로의 유지관리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주민참여설계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설계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가로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설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점과, 상점 앞에 수목식재를 기피하는 집에 대한 대안으로 건물사이 공간, 공공기관 전면 등 시간적으로 간판을 차폐하지 않는 식재가능지역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곳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본 설계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업가로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가로설계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만들어 스스로 가로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 1. 편집자 주: 상기 작품은 1999년 6월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보행자중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주 2. 주민참여설계는 현상공모시 단지 제안사항이며 실제 설계 진행시 주민참여과정이 도입되었다.

인용문헌

1. 김성균(200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마당설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양지공원, 한국조경학회지 29(3): 61-69.
2. 전주시(1997) 전주시사.
3. 한국토지공사(1988) 보차공존도로의 계획과 설계.
4. Rubenstein, H.(1992) Pedestrian Malls, Streetscapes, and Urban Space. New York: John Wiley & Sons.

원 고 접 수: 2005년 4월 2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6월 21일

4인인명 심사필